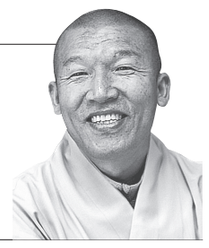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주경 스님
수덕사 대중 · 조계종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겨울 석 달 안거가 지날 무렵
보성 큰스님의 부고를 들었다

1989년 비구계산림서 처음 친견
사투리 · 시골노인 풍모와는 달리
수행 · 경륜 두루 갖춘 율사셨다
어디 갈지 모를 젊은 승려들을
어린 소 다루듯 능숙히 이끌어

두루 듣고 알기에 당신은 일생을
'平常事'를 챙기며 살아오셨다
마지막 가르침 가슴에 울려온다
"정진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

겨울 석 달의 안거가 다 지나가고 있었다. 선방에서는 죽비를 놓고 큰 절 대중과 산내 선원, 암자의 식구들까지 온 산중의 대중이 모여서 전체 산중의 쓰레기도 줍고 청소까지 마쳤다. 잠시 여유있는 차담 자리가 마련되었다. 어른 스님들께 "덕분에 한철 잘 살았습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니 "왜, 어디 가느냐"고 물으셨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가! 아차 싶었다.

그러면서 "방을 빼느냐"고 한 말씀 던지신다. 그저 한 철 잘 산 것 같아서, 스스로 대견하고 대중 스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인사말씀을 드렸다가 호된 법거량을 당한 것이다.

"아이고, 저는 이 산중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라고 엄살을 부렸다. 완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산중에 대중으로 만족스럽게 철을 지냈다는 기쁨과 고마움이 새삼스럽다. 이제 해제가 하루 남았을 뿐이다.

해제법회를 겸한 마지막 포살을 위해 대중이 모이고 있을 때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의 부고가 전해졌다. 담담하게 "때 맞춰 가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몇 년 전 스님께서 무척 위급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 이미 한 차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뒤로 당신의 건강이 무척 양호해져서 이전과 다름없이 대중과 지내신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언젠가 스님께서 떠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1989년 가을 비구계산림에서 스님을 처음 뵈었다. 정확한 소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수계산림 전체를 총괄하셨다. 투박한 사투리에 꼬장꼬장한 말투 그리고 시골 노인 같은 당신의 인상은 여유있고 차분할 거라는 일반적인 율사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수행과 경륜을 두루 갖춘 어른이셨다. 신심 충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운을 주체 못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승려들을 노련한 농부가 어린 소를 다루듯 진솔함으로 능숙하게 이끌어 주셨다.

한 번은 당신께서 수계대중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당 바깥에서 어린아이가 울면서 투정부리는 소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대중의 분위기가 무척 탁하고 부담스러워졌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외면하고 말씀을 이어가시더니 마침내 한 말씀하셨다.

"아이고, 뉘집 아가 시끄럽게 울고 떠드노. 스님들 수계산림하는데…. 누가 가서 조용히 좀 시키라."

그 순간 대중은 폭소를 터뜨렸고 탁하고 부담스럽던 분위기는 확 바뀌어 버렸다. 길게 참은 당신의 인내도 존경스러웠고 때맞춰 투박하게 던진 한 말씀도 진솔하고 좋았다. 이때 이후로 수계 대중은 율사 스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다. 상상 속의 율사 스님을 버리고 실재 진면목의 율사 스님을 보게 된 것이다. 이후 스님을 무척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법장 스님께서 총무원장을 역임할 당시 총무국장으로 방장실에 인사를 가게 되었다. 마침 보성 스님께서는 붓글씨를 쓰고 계셨는데 인사를 받으시고는 붓글씨를 계속 쓰셨다. 잠시 지켜보고 있었더니 스님께서 글을 한 폭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름을 쓰고 승납을 물으셨다.

20년이 조금 안 되고 당신께 비구계 산림을 살았다고 말씀드리니 이름 아래 화상(和尙)이라고 쓰시겠다고 했다. 부담스러운 호칭이라고 말씀드리니 "아니야, 충분해.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으니 당당하게 받아"라며 그리 써주셨다.

한참이나 어린 후학조차도 존중해주시는 당신의 자상함에 존경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두루 듣고 알기에 당신은 일생을 평상사(平常事)를 챙기며 사신 분이다. 평상심이 아니면 어찌 평상사를 챙길 것이며, 평상사를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평상심을 말할 것인가. 평상사로 살아온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이 가슴에 울려온다.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이다."



마음산책

마음에 봄 오는 소리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남쪽에 매화가 피고, 곧 봄이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는 요즘이다. 정신치료의 대가인 故이동식 박사는 "심리치료는 보살행과 같고, 내담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봄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다. 봄 눈 녹는 듯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떠오른다.

40대 싱글여성 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얼굴은 어둡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최근에 다시 만난 그녀는 깜짝 놀랄 만큼 밝아보였다. 말투와 태도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하고 평화로웠다.

저절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하고 물었다. 김 씨는 우울증에 명상이 도움 된다고 하여 2년 전 한 명상모임에서 '감사명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매일 카톡방에 감사하는 것을 세 가지 적고 명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 씨의 상황은 도대체 감사는 커녕 절망스럽고 원망할 일만 가득했다. 그런데 '마음에 감사를 입력하면 감사할 일이 출력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심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시험해보고 싶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매일 억지로 감사할 점을 찾았다. 도반들이 쓰는 감사 내용을 보며 배우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놀라게 되었다고 한다.

항상 돈에 쪼들리던 김 씨는 공기도 무료, 햇빛도 무료, 산도 하늘도, 인간에게 그냥 주어진 것만 해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몸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쓰고 있다. 은행통장은 마이너스지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다. 서서히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김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명상을 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지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포기했던 일에 도전해서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된 것은 김 씨에겐 기적과 같았다.

악조건에서 밝아진 그녀를 보며, 과거의 부정적이던 그 마음의 얼음을 녹이려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가슴에 울림이 전해온다. 감사하는 정진으로 스스로 감사한 인생을 만들게 된 것이다.

매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과 분투하는 사이, 우리는 너무 많은 감사할 일들을 놓치고 살아간다. 항상 절에 가면서, 불교의 정법을 만난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종종 잊고 산다. 탐진치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루 건강하게 불교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정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대행 스님은 "만물만생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마음 하나 잘 쓰는 데에 온 누리를 향기로 꽃 피울 수 있다"고 했다. 올 봄에도 많은 분들이 내면의 힘을 자각하고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회복해서, 방방곡곡에 마음 꽃들이 환하게 피어나기를 발원한다.

社 說

백년대계본부 재편에 거는 기대

지난 2017년 조계종 미래 전략기구로 출범한 백년대계본부가 2년 만에 전면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는 3월 말경 출범을 목표로 재편 중인 백년대계본부는 기존의 대중공사추진위원회 · 종책개발위원회를 해산하고, 종령개정을 통해 신규위원회인 화합과혁신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백만원력결집위원회를 추가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백년대계본부를 종단 혁신 원동력으로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화합과혁신위원회는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것이다. 이는 다수의 종도 의견을 듣고, 종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으로는 교구본사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중진 비구니 스님 등을 섭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에 방점을 둔 여러 방안들도 추진된다.

문화창달위는 불교문화 보존 ·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며, 백만원력결집위는 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성취하기 위한 신규 기관이다. 또한 미래세대위원회 2기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재편되는 백년대계본부는 종단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 종단이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시기적으로도 혁신 추진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난 내우외환의 갈등은 조계종이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었음을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백년대계본부에 거는 기대다.

'절망' 속 '희망'을, 청년 포교 시작하자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고달픈 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서울 노량진 고시촌이다. 이 곳에 지난 2018년 2월 작은 쉼터가 생겼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이 개소한 마음충전소였다. 10여평 남짓한 곳에 작은 다실과 텐트가 전부였지만 고시원과 학원, 독서실을 쳇바퀴처럼 돌던 학생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됐다.

우울증을 앓던 한 학생은 스님을 만나 상담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세웠고,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던 한 학생은 어머니들로 구성된 봉사자들이 챙겨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새로운 힘을 찾았다. 마음충전소는 고시생들에게 힘든 시기 잠깐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곳이 됐다.

이런 마음충전소가 지나온 1년의 과정은 불교계에 큰 메시지를 준다. 그동안 불교계는 수동적인 전법포교에만 머물러 있었다. 청년포교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새내기 학생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포교, 혹은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정신문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 수준이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미래세대의 전법 포교 차원에서 소외계층 포교를 주목하는 이는 적었다. 종교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누구일까를 고민해보면 청년들 중에서도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자녀들이나 고시생, 혹은 소년가장 학생들에게 보다 다가갔어야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란 이름은 '절망'이란 단어와 연관되어 회자되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로는 힘들다. 정말로 힘든 청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있을 때 이들은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몸소 체험하고, 언젠가 불심이 증장되어 불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